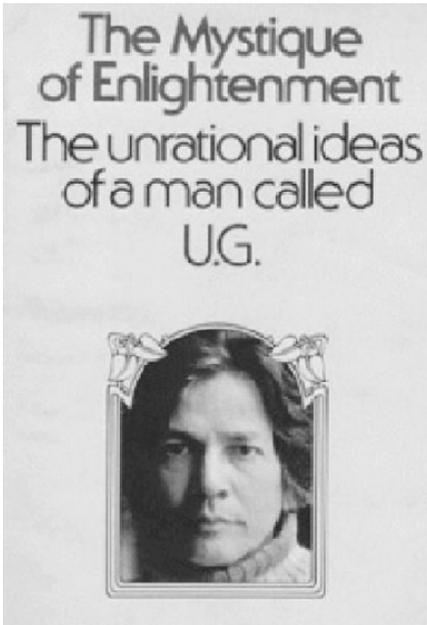


깨달음의 신비

U. G. 라는 사람의 비이성적인 생각(3부)

| U.G. 크리슈나무르티 | 노호상 옮김 |

우리는 보통 '나'라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나'가 손상받으면 '죽을듯이' '느낍니다.' 그러나 여기 그 상식에 메스를 가하는 날카로운 지혜가 있습니다. 그는 감각이 '중심'없이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한 U.G.이며 그의 통찰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3부)

(정답이 없음을 발견하자 그가 품었던 근본적인 질문이 사라지고 생리학적인 현상이 나타났다고 U.G.는 말한다. “안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이 있었다. 마치 내 몸의 모든 세포, 모든 신경, 모든 분비선이 폭발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폭발’과 함께, 계속된 생각이 있다는 환영, 중심이 있다는 환영, 생각들을 연결하는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생각이 연결될 수 없습니다. 연결이 끊어집니다. 일단 끊어지면 그 것으로 끝입니다. 생각이 폭발하는 것은 한 번이 아닙니다. 생각은 일 어날 때마다 폭발합니다. 그렇게 연속성이 떨어져 나가고 생각이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후로 나는 어떤 질문도 품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지속될 수가 없었으니까요. 내가 가진 유일한 질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매우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를테면 “하이드라바드에 가는 길은?” 하는 정도였고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답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그런 질문들에는 아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질문도 없어졌습니다.

머릿속의 모든 것이 바짝 긴장해 들었습니다 - 머릿속에 털끝만큼의 여유공간도 없었어요. 처음으로 나는 머릿속에 모든 것이 ‘긴장해’ 있구나 하고 내 머리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사나스(vasanas(과거의 인상) 혹은 이름이야 뭐가 됐든 그것이 가끔 고개를 들려 합니다. 그러나 뇌세포가 너무 긴장해서 더 이상 움직일 기회가 없습니다.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 그것은 육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당

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면(그것이 핵폭발과 같기 때문에 나는 ‘폭발’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뒤에 연쇄 반응을 남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모든 세포, 골수 속의 세포가 이 ‘변화’를 거쳐야 합니다. 변화라는 단어는 피하고 싶지만,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게는 다시 ‘추락할’ 문제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일종의 연금술입니다.

이것은 핵폭발과 같습니다. 전신을 산산조각 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끝입니다 - 산산조각 나서 몸속의 모든 세포가, 모든 신경이 폭발합니다. 나는 그 순간에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의 사후결과는 온몸의 화학적 성질을 바꿔놓습니다.

질문 : 선생님께서는 더 높은 차원을 경험했음에 틀림없습니다.

U.G. : 차원이라고 했나요? 차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폭발’이라 하든 뭐라 하든 그것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매우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다르다’는 생각이 이 의식에 들어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의식에 들어와서 ‘당신은 나와 달라, 나는 당신과 달라’라고 말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핵심이 없고, 여기에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당신은 모든 다른 것들을 만들어 냅니다.

질문 : 어떤 식으로든 선생님께선 다른 사람과 다른 게 틀림없습니다.

U.G. : 생리학적으로는 그럴지도 모르죠.

질문 : 선생님께서는 엄청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시나요? 검사를 받았나요? 아니면 추측인가요?

U.G. : 그것('폭발')의 사후 결과는 감각이 조력자나 중심 없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뿐입니다. 하나만 더 꼽자면 화학적 성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화학적 성질이 아예 달라지지 않는 한 이 유기체가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생각의 사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의 이어짐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일어났다고 말하기는 매우 쉽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나는 결코 이것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질문 : 마음이 장난을 쳐서 '나는 폭발한 사람'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까.

U.G. : 나는 여기서 뭔가를 납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것을 모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내가 기대하고 꿈꾸고 변화를 원하는 장이나 영역 바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변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능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작용하고 있는 방식과 내가 작용하고 있는 방식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표현하려고 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 차이가 전부입니다. 내가 작용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U.G.는 ‘폭발’ 후 일주일 동안 감각 작용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알아차렸다. 마지막 날 그의 몸은 ‘육체적인 죽음의 과정Nirvikalpa samadhi’을 거쳤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영구적인 특징이 되어버렸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매일 한 가지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발견했고, 눈의 깜빡거림이 멈췄습니다. 그 다음에는 맛, 냄새, 청각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 이렇게 다섯 가지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 전부터 변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 알아차린 것은 그때입니다.

(첫째 날) 피부가 비단처럼 부드러워지고 기이한 금빛 광채가 났습니다. 당시에는 면도를 했었는데 면도를 할 때마다 면도칼이 미끄러졌습니다. 면도날을 바꿔봤지만 소용없었죠. 얼굴을 만져보면 촉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면도날을 쥐는 방식도 달라졌죠. 피부가 비단같이 부드럽고 금빛 광채가 났습니다. 나는 이런 현상을 아무것과도 연결시키지 않고 관찰만 했습니다.

(둘째 날) 나는 내 마음이 ‘클러치 풀린 상태’ 라고 표현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나는 위층 부엌에 있었고 발렌타인이 토마토 수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쳐다봤지만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토마토 수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맛보고 나서 “이것이 토마토 수프 맛이구나”하고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수프를 마셨습니다. 나는 이 이상한 마음의 틀

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의 틀’이란 말이 적당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아닌’ 틀이었습니다 - 그 속에서 나는 눈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요?”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토마토 수프라고 했습니다. 나는 다시 그것을 맛보았고, 삼키고 나서 또다시 잊었습니다. 한 동안 그 상태를 즐겼습니다. 그때는 그 ‘클러치 풀린 상태’가 꽤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몽상이나 걱정, 개념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홀로 있을 때 하는 생각들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마음은 필요할 때만 개입합니다. 당신이 질문을 하거나 내가 녹음기를 고쳐야한다든가 할 때만 그렇죠. 그밖의 시간에는 마음은 ‘클러치 풀린 상태’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을 잃었지만 지금은 물론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도 배경 속에 있다가 필요할 때만 극중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요. 필요하지 않을 때는 여기에 마음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생명만이 있습니다.

(셋째 날) 몇몇 친구들이 저녁식사에 초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 준비를 해두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나는 제대로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감각이 변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냄새가 콧구멍으로 들어왔지만 값비싼 향수냄새든 소풍 냄새든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뭔가를 맛볼 때면 가장 두드러진 성분만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분들은 나중에 천천히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향수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고 매운 음식도 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추든 무엇이든 가장 두드러진 것만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넷째 날) 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리알토’ 식당에 앉아있었습니다. 나는 오목 거울 같은 형태의 엄청난 와이드스크린 비전을 보았습니다. 나를 향해 오는 것은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게서 멀어지는 것은 나로부터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리둥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내 눈은 마치 저절로 초점이 바뀌는 거대한 카메라와 같았죠. 지금은 그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요즘에 내가 보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를 차에 태우고 갈 때 나는 마치 움직이는 카메라와 같습니다.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가 내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를 지나쳐간 차는 나에게서 나갑니다. 내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을 때 눈은 카메라처럼 그것에 전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식당에서 나와 집에 와서 나는 눈에 이상이 있는지, 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려고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눈을 깜박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0분이나 45분 동안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눈을 깜박이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인 깜박거림이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섯째 날) 나는 청각에서도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개 짖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내 안에서 나왔습니다. 소 울음소리도, 기차의 기적 소리도 같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내 안에서 나왔습니다.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섯 가지의 감각이 5일 만에 변했습니다. 6일째 나는 소파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 몸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손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내 손인가?” 싶었습니다. 의문이 든 건 아니었지만 모든 상황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몸을 만져보았습니다 -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 감촉 말고는 어떤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부엌에 있던 발렌타인을 불렀습니다 : “소파에 있는 내 몸이 보이나요? 내 안의 어떤 것도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녀가 몸을 만졌습니다 - “당신의 몸이 맞아요.” 하지만 그 말은 내게 위안이나 만족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무슨 재미있는 일이람? 몸이 없어지다니.” 몸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몸에 있는 것이라곤 접촉 지점뿐입니다. 그 밖에 어떤 것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보는 것은 여기서 촉각과는 전적으로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완전한 상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촉각이 없는 곳에 의식이 놓쳐버린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7일째 나는 소파에 누워서 느긋하게 ‘클러치 풀린 상태’를 즐기고 있습니다. 발렌타인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방에서 나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 텅 비고 발렌타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지? 발렌타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나는 내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끼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감각에 내적인 조절 장치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절장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 생명 에 지가 내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 한 점으로 모였습니다. “이제 내 삶이 다 했나보다. 곧 죽을 거 같군.”하고 혼잣말을 한 뒤 발렌타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죽을 거요, 발렌타인, 시신을 처리해야 할 텐데 의사에게 줘요. 그들에게겐 쓸모가 있을지 모르니. 나는 화장이나 매장 같은 걸 고집

몸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몸에 있는 것이라곤 접촉지점뿐입니다. 그밖에 어떤 것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보는 것은 여기서 촉각과 전적으로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완전한 상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촉각이 없는 곳에 의식이 놓쳐버린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아요. 당신 마음대로 처리해요. 언젠가 냄새를 풍길 건데, 쥐버리는 게 낫지.”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외국인이에요. 스위스 정부는 당신의 시신을 받지 않아요. 잊어버려요.” 그러곤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명에 지가 한 지점으로 모이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대는 비어있었죠. 그래서 나는 침대로 옮겨가 몸을 펴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못 본체 하고 나갔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루는 이것이 변했고, 또 하루는 이것이 변했으며, 또 다음날은 이것이 변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다 무슨 소리죠?” 발렌타인은 이런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죽지 않아요. 아주 건강하다고요.” 그녀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몸을 쭉 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되었습니다. 전체의 생명에 지가 한 지점으로 모였습니다. 그 지점이 어딘지는 나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이 마치 카메라의 조리개가 저절로 닫히는 것 같은 순간이 왔습니다. (저로서는 이렇게밖에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 당시 일어난 일과 아주 다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제 경험의 일부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조리개의 구멍이 저절로 닫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어 놓으려고 하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하려는 의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조리개가 닫히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조리개 구멍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과정은 49분간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과정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과 같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다. 손과 발이 아주 차갑게 됩니다. 몸이 굳고 박동이 느려집니다. 호흡이 잦아들고 숨을 헐떡입니다. 마지막 숨을 쉬곤 그리고 끝입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그 상태에서 나왔을 때 누군가 나에게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멍한 상태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무엇이 나를 다시 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태가 얼마나 계속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경험하는 자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죽음을 경험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경험은 끝이 났습니다. 나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새로 태어난 아기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의 문제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에 나를 놀라게 했던 것, 미각이나 시각에서의 변화는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나는 이 모든 사건을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그것을 재앙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이것이 황홀하고, 지복스럽고, 행복과 사랑과 환희로 가득한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이것이 육체적 고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고문입니다. 내게는 재앙이 아니지만 믿기 어려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상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입니다. 당신이 뉴욕을

상상하고 꿈꾸고, 뉴욕에 가보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그곳에 가봤더니 꿈꿨던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신이 버린 곳이고 악마조차도 아마도 그곳을 버렸죠.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 있는지 당신은 전혀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상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내 스스로나 누구에게도 결코 “나는 깨달은 사람, 해탈한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요. 내가 인류를 해탈시킬 것이요.”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해탈시킬 수 있나요? 다른 누구를 해탈시킨다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상을 가져야 하니까요. 이해되나요?(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The Mystique of Enlightenment』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저자 | **U.G. 크리슈나무르티** Uppaluri Gopala Krishnamurti (1918.07.09~2007.03.22) | 깨달음에 의문을 제기한 인도 사상가였다. 비록 개인의 일상에서 ‘사고(思考)’가 필요하긴 하지만 궁극적 실재나 진리라는 의미에서 그는 그것을 거부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모든 사고체계와 지식을 부정하는 것이다.

비록 많은 이들이 그를 ‘깨달은 사람’이라 여기지만 U.G.는 종종 그의 존재 상태를 ‘자연스런 상태’라고 부른다. 만일 깨달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물론 두 사람이 여러 번 만나기는 했지만 그는 동시대 인물인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homepage:http://en.wikisource.org/wiki/The_Mystique_of_Enlightenment/Part_One

역자 | **노호상** | <지금여기> 번역위원. natural state of life에 관심이 많다. 역서로는 오소의 『법구경』(전 12권, 황금꽃)이 있다.